

96.12.13

“낙태 방지” 불교계 한목소리

태아생명 수호 세미나…사찰주관 성교육등 대안제시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낙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제1회 불교 태아 생명 수호 세미나가 10일 서울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렸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스님)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살생을 제1의 금기로 여기는 불교가 낙태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이를 반성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연 행사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불교계 최초의 낙태 관련 세미나여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교계 내부의 낙태 반대운동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는 묘주 스님의 ‘불교 경전에 나타난 태아관’, 프랭크 테데스코 세종대 교수의 ‘세계 각국의 임신중절 실태’, 현원 스님의 ‘생명 수호를 위한 불교적 반성과 대안’ 등 3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낙태가 불교 교리에 위배되며 불교가 낙태 반대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갖가지 의견이 제시됐다.

묘주 스님은 주제발표에서 “보살계를 받은 불자들이 가문대 절반이 낙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생명경시 풍조와 남아선호 사상 등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데스코 교수는 “불교계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도재가 낙태를 합리화시켜주는 ‘종교적 인가’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죽어간 아기들에게 재를 지내고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지난 10일 불교회관에서 열린 태아 생명 수호 세미나에서 현원 스님(왼쪽에서 3번째) 등 발제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는 불행한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테데스코 교수는 이어 불교계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찰에서의 성교육 등 좀더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원 스님은 “불교의 생명관에서 ‘태아는 생명이다’라는 명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낙태 시술을 반대하는 불자의료인공동선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원 스님은 이어 낙태를

포함해 여성의 사회진출로 날로 부실해져가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직장에서 ‘우리아기리기운동’을 전개해 갈 것을 제안했다.

불교계에서는 몇몇 스님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낙태 반대운동을 벌여왔을 뿐 교계 전체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덕 스님은 “불교의 생명사상을 바탕으로 낙태 방지에 적극 나서기 위해 이러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남기 기자